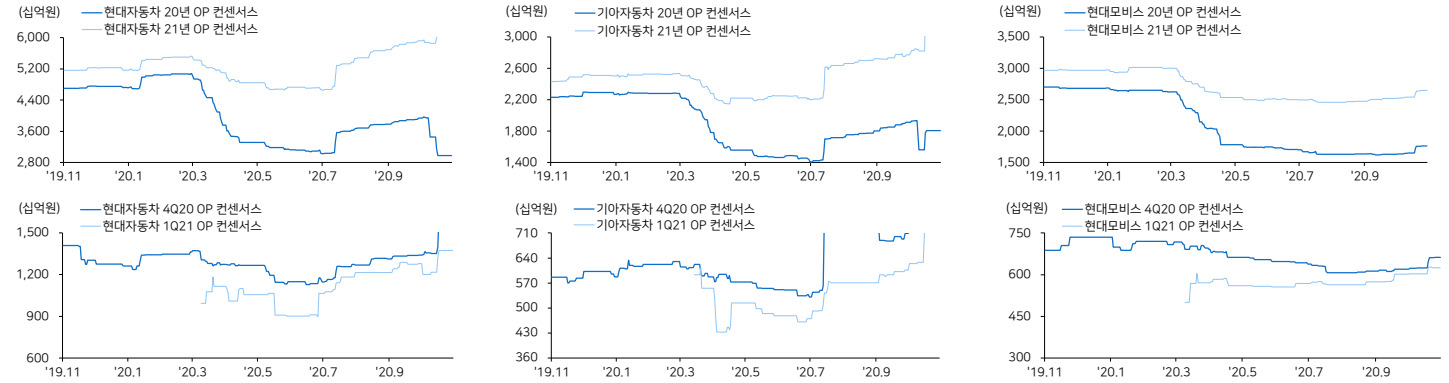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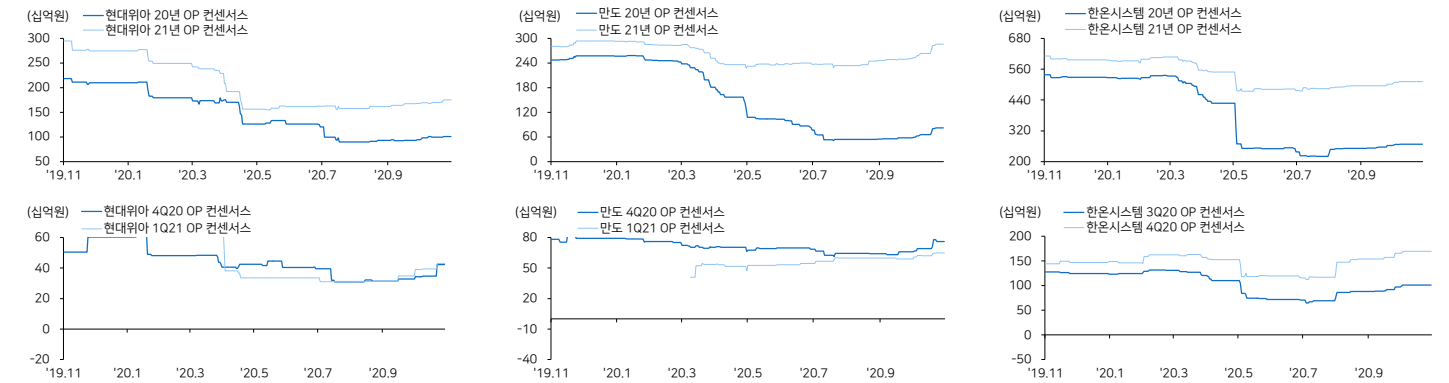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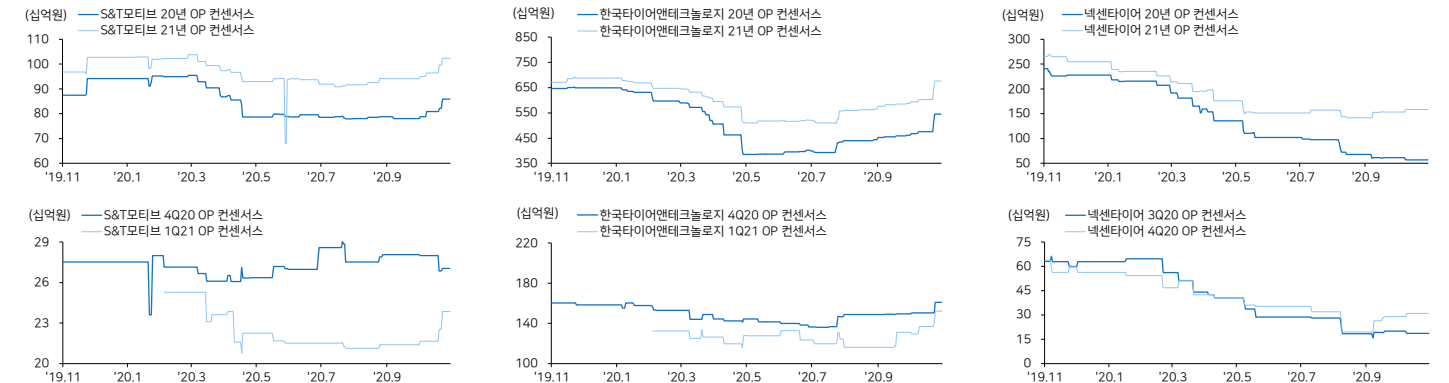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美본토서 전기차 大歡 예고...현대차, 100만대 新시장 눈독 (매일경제)

자기 미국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그가 내세운 경제·통상 관련 공약들이 주목받고 있음. 바이든 당선인은 산업 측면에서 친환경·재생에너지 분야가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https://bit.ly/2G6sZWz>

현대차 3총사, 中친환경차 시장 대반격 (서울경제)

중국 시장에서 증자림 기를 못 피하던 현대·기아차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 중국 별도 명칭을 단 전기차 브랜드를 발표하고 최고 기술력의 수주자를 출시에 현대·기아차의 앞선 기술력을 선보이며 내년에는 제네시스 출시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는 계획.
<https://bit.ly/36kjifs>

美 투자자들에 '성장률' 실적 회복 기아차, 노사 관계 암초 만나 (아시아경제)

최근 두달 연속 미국 시장에서 투자자수 판매 성장률을 기록한 기아자동차가 국내에서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난항을 겪으며 어려움에 직면.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한 실적 상승세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목 잡힐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됨.
<https://bit.ly/3eCkuef>

"조원범이 아버지 부추겼다" 한국타이어 家 경영권 大戰 (MBC뉴스)

스트레이토는 미국에 거주중인 장녀 조희경 이사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 조 이사장은 막내 동생인 조원범 사장을 직접 겨냥하며 "장계논의가 시작되는 등 위기에 몰리자 노환중인 아버지를 부추겨 비밀리에 주식을 넘겨받았다"고 직격탄을 날림.
<https://bit.ly/2lghBIE>

현대차, 화물 운송용 무인항공기 개발 착수...2026년 상용화 (파이낸셜뉴스)

현대차가 중형급 화물 운송용 무인항공기 개발에 착수하며 도심 항공 모빌리티 상용화에 박차를 가함. 현대차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앞서 국내외 우수 협력업체 발굴에 나선다고 밝힘.
<https://bit.ly/2U8HZSw>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건설 60% 진행...루트 장관 방문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의 현대차 완성차 공장 건설 공사가 60% 진행된 가운데 루트 장관이 탄 해안투자조정장관이 6일 현장을 방문. 루트 장관과 박 대사는 한국에 있는 공영운 현대차 사장과 화상회의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지원방안 등에 관해 논함.
<https://bit.ly/3kblPF5>

현대모비스, 美 앨라배마에 부품 공장 설립 (글로벌이코노믹)

현대모비스가 미국 앨라배마에 제2공장을 건설. 지난 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최근 앨라배마주(주) 제퍼슨 카운티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산업단지에서 1580만 달러(약 180억 원)를 투자해 자동차 부품 공장을 지을 예정.
<https://bit.ly/38ntdZl>

전기차 충전사업자 1년새 두배 늘었다...'대기업 시장 참여 시작됐다' (전자신문)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지난해 15개 안팎에서 올해 34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남.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위주에서 대기업의 충전 시장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 정부를 비롯해 물류·유통 대기업들의 공격적 시장 행보가 주목됨.
<https://bit.ly/2llISF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